

금융위원장, ‘금융분야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주관

- 금융위원회는 주요 금융기관 및 국가핵심기반 재난관리주관기관으로서 대형 싱크홀(지반침하) 발생 등에 따른 금융시스템 마비에 대비한 위기 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실시
- 이덕원 금융위원장은 10.29일(목)에 대형 싱크홀 발생 및 DDoS 공격 등의 복합재난 상황을 가정하여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를 직접 주재하고 금융분야 재난대응체계를 점검
 - 다양한 재난 상황에 대비하여 국가 핵심 기반시설인 금융전산 인프라의 안전성과 서비스 연속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

1

‘26년 안전한국훈련 개요

금융위원회는 금융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오늘 오후 2시부터 한국거래소(서울사옥)에서 재난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2026년 금융분야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실시하였다.

훈련에는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주훈련기관), 금융감독원 등 8개 금융 유관기관, 영등포소방서, 영등포경찰서 등 총 11개 기관이 함께 참여하였다.

< 금융분야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개요 >

- **(일시/장소)** '26.10.29.(목) 14:00~15:30, 한국거래소 서울사옥(여의도)
- **(훈련내용)** 여의도 인근 대형 싱크홀 및 DDoS 공격으로 전산센터 일부 시스템이 마비되는 상황을 가정하여 **금융위원회와 유관기관의 재난 대응체계를 점검**
- **(참여기관)** (정부) 금융위원회, (금융유관기관) 한국거래소(주훈련기관), 금융감독원, 금융보안원,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한국예탁결제원, 금융결제원, 코스콤 (협조기관) 영등포소방서, 영등포경찰서 총 11개 기관

이번 훈련은 대형 싱크홀에 따른 실외기 화재 및 DDoS 공격 등으로 전산센터의 일부 시스템이 마비되는 복합적인 재난 상황을 가정하였다.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는 소방서 등과 합동으로 재난 상황 인지 및 전파, 대피 및 인명구조 활동, 실외기 화재 진압 등 현장 훈련을 실시하였고,

싱크홀이 확대되어 전산센터의 기능이 일부 손상된 상태에서 DDoS 공격까지 발생하는 금융전산 복합재난 상황을 가정한 토론 훈련도 진행하였다.

2 안전한국훈련 주요 발언

이덕원 금융위원장은 “중양사고수습본부” 회의를 직접 주재하여 기능이 손상된 전산센터를 대체 사업장으로 전환하는 과정 등을 점검하였으며,

금융 전산센터 사고는 철저하게 예방·대응하지 못할 경우 국민의 일상 생활 곳곳에 불편을 초래하고 금융시장의 혼란을 야기하는 등 큰 사회적 비용을 유발할 수 있음을 언급하였다.

아울러, 오늘 훈련으로 실제 재난 상황에서도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하여 금융서비스가 중단되지 않는 “장애 제로(zero)”를 실현할 수 있도록 참여기관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당부하였다.

한편, 주 훈련기관으로 참여한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오늘 훈련은 금융시장의 복합재난 상황에서 우리의 대응 체계가 실제로 작동하는지를 점검하는 중요한 자리였다” 고 언급하며, “한국거래소는 어떠한 재난 상황에서도 증권·파생상품시장이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고 밝혔다.

3

향후 계획

금융위원회는 이번 훈련을 통해 금융분야 국가핵심기반 위기대응 체계를 점검하였고, 「국가핵심기반 마비 재난 위기관리 매뉴얼」에 점검 결과를 반영할 계획이다.

또한 유관기관과 함께 다양한 재난 유형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하기 위해 매뉴얼의 적실성을 제고하고, 주요 시스템·시설에 대한 리스크 점검 역량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 [별첨] 금융위원장 모두말씀

담당부서 <총괄>	금융위원회 감사담당관	책임자	과 장	박성진 (02-2100-2790)
		담당자	사무관	송용석 (02-2100-2794)
			주무관	정해원 (02-2100-2806)
<공동>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	책임자	과 장	고영호 (02-2100-2650)
		담당자	사무관	안영비 (02-2100-2656)
<공동>	한국거래소 리스크관리부	책임자	부 장	신희용 (02-3774-9200)
		담당자	팀 장	류진경 (02-3774-9201)
<공동>	한국거래소 IT 전략부	책임자	부 장	박성환 (02-3774-8880)
		담당자	팀 장	김미경 (02-3774-8881)